

여름을 알리는 바람이 불니다.

제 집의 작은 앞마당에도 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푸른 잎 속에 화사하게 핀 작은 장미덩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화려하고 커다란 한 송이 꽃보다 작은 꽃들로 이루어진 꽃다발이 더욱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가끔 저는 ‘한 송이의 화려한 꽃만을 바라보는 삶보다 작은 꽃이 모인 꽃다발을 만드는 삶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커다란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모든 열정을 쏟다보면 쉬 지칩니다.

크고 화려한 꽃 한 송이 보다 덩굴 가득 피어난 작은 들장미 같은 작은 행복을 하나하나 키우면

작은 행복들이 모여 어느새 우리의 삶도 소박한 들장미다발처럼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가지마다 작은 장미 여럿을 단 들장미덩굴처럼, 손톱만큼 작은 꽃들이 모인 안개꽃다발처럼,

우리의 삶도 작은 행복 하나하나가 모여 향기로운 삶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름에 취하고 간간히 부는 시원한 바람에 설레는 여름이 우리의 곁에 소박이 내려앉으면

상쾌한 여름향기를 닮은, 작은 행복들이 모인 소담스런 꽃다발이 우리 곁에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람을 닮은 소담스런 행복 꽃다발을...

